

한방 상식

건강하게 사는 법

사상 의학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땀을 많이 흘릴까?”라든가 여행 길에 흔히 “나는 선천적으로 장(腸)이 나쁜 편이에요.”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이러한 말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면서도 이러한 말을 들으면 우리는 아무런 저항감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우리가 확연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막연하나마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즉, 똑같이 감기·몸살을 앓더라도 어떤 사람은 코감기, 또 어떤 사람은 목감기부터 걸리는 체질적인 특성을 경험하였거나 그 실례를 보아 온 것이다.

이것은 모두 각자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천적인 체질 때문이다.

체질이란 각 개인만이 가지는 신체적인 특징이다. 즉 외모뿐만 아니라 신체내의 구조와 기능, 정신상태 등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체질적인 특징은, 물론 유전적인 차이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자라나면서 주위환경이라든가 변화에 따라 조금은 변하게 된다. 그러나 각자가 타고나는 근본적인 체질적 특징은 외부의 어떠한 변화에도 변모되지 않는다.

이렇듯 인간에게는 각 개인마다 신체적 특징이 있음을 발견하고 체질의 특성에 따라 약물을 달리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이 바로 조선시대의 명의(名醫) 이제마(李濟馬)이다.

그는 사람의 체질을 태양인(太陽人), 태음인(太陰

人), 소양인(小陽人), 소음인(小陰人) 등의 4가지로 나누어 그 유형에 따라 기질과 용모, 심리 상태, 내장의 강약, 금기약과 적응하는 음식 등 체계적이고도 세밀하게 분류해 놓았다.

이 학설이 발표된 당시에는 내용의 과격함 때문에 이단으로 취급되어 왔으나 최근 체질의학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후학(後學)들의 꾸준한 연구노력으로 널리 보급되어 동양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서양의학에까지 높이 평가되어 활발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의학 전문기관에서도 사상의학의 우수성과 의학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제마의 사상의학이 크게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연구기간이 짧은 것이 원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의 체질과 의학 사이의 상관성에 의한 질병 치료, 치유 경험을 토대로 한 치료 등은 고도로 발달된 현대 의학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놀라운 업적임에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한 비단 자부심에 그치지 말고 좀더 깊은 관심으로 연구 계승 발전시켜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태양인(太陽人)

금(金)의 기(氣)가 있으며 용(龍)과 같이 패기있는 성품을 지닌다.

1. 용모

용모는 단정하고 깔끔하여 목이 굵고 뒷덜미가 특히 발달되어 있다. 머리는 크고 얼굴은 둥근형으로 눈은 비교적 작은 편에 속하나 눈에 광채가 있다.

신체적 특징은 상체는 비교적 튼튼하고 견실하지만 허리부분이 약하여 다리가 힘이 없어 오랫동안 걷지 못하다.

2. 성격

비교적 성격은 남들과 잘 통하나 독창적인 의욕이 지나치고 상대방의 단점을 들어 인신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어 교제의 범위가 좁다.

또 영웅심, 자존심이 강하고 과장하는 것이 많으며 진취성이 있다.

그러나 반면에 감정적이고 계획성이 없어서 대담하지 못하고 사업이나 어떠한 일에 실패하고도 후회하지 않는 면을 보이기도 한다.

또한 두뇌가 명석하여 사람을 사귄 때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단하는 반면에 고민이 많고 슬픔이 극도에 달하면 분노로 치우치기 쉽다.

태양인 중에는 뛰어난 영웅이 있는가 하면 백치도 있다고 하는데 대부분 영웅호걸이 많다고 한다.

3. 내장기능

폐대간소(肺大肝小)하여 폐(肺)는 크므로 기(氣)가 강하고 간(肝)이 작아 기(氣)가 허(虛)하다.

소변을 자주 보고 대변은 활(滑)하며 양(量)이 많다.

4. 자주 걸리는 병

태양인은 상체에 비해 하체가 약하여 한기(寒氣)를 받으면 종아리가 저리고 다리에 통증을 일으켜 걸을 때 힘들 수 없게 된다. 이것은 허리와 등이 약해서 생긴 병으로 발열, 오한(惡寒)이 있으면 빨리 치료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몸은 목구멍에 가까운 곳이 건조하면 음식물이 넘어가기가 어려워지는데 태양인이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위의 양(陽)의 기(氣)가 너무 왕성해지므로 음식물이 식도에 막혀 내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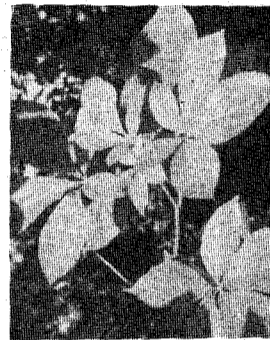
● 다래 : 달여서 마시면 즉시 음식물을 토해내는 반위(反胃)에 효과가 있다. 등(藤)은 즙을 내어 위가 막히고 구역질이 날 때 사용한다.

● 메밀 : 기력(氣力)을 강하게 하고 위(胃)와 장(腸)을 튼튼하게 한다.

● 순나물 : 반위(反胃), 소화불량, 신트림에 붕어와 함께 국을 끓여 먹는다.

● 목과(木瓜) : 달여 마시면 구역질을 그치게 한다.

● 오가피(五加皮) : 다리가 약하여 저리고 통증이 있는 증세를 다스린다. 어린 아



■ 자극성이 강한 고추



■ 다리가 약한 증세에 좋은 오가피나무

가 잘 견디지 못할 때에 복용해도 좋다.

● 소나무 마디(松節) : 다리에 힘이 없는 증세에 효과가 있다.

● 방합(蚌蛤) : 반위(反胃), 음식물을 토(吐)할 때에 좋다.

● 붕어 : 반위(反胃)를 치료한다.

<다음호에 계속>

5. 효과적인 한약

● 노근(蘆根) : 목이 잠겨 말하지 못하거나 헛구역질을 일으킬 때 좋으며 오열, 변민에 효과가 있다.

● 포드근(葡萄根) : 진하게 달여서 조금씩 복용하면 구역(嘔逆), 딸꾹질을 멎게

PARLODEL®

The advantage of early combination therap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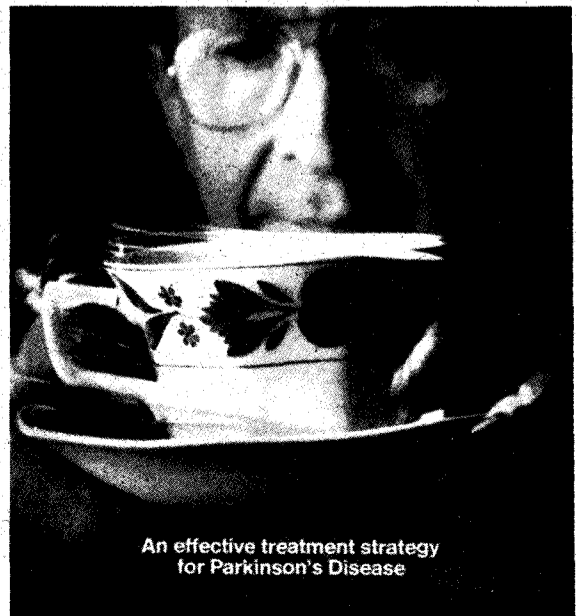
- ▶ 팔로델 조기병용투여는 만족할만한 Parkinson's Disease 치료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 ▶ 팔로델 조기병용투여는 Levodopa 투여량을 감소시킵니다.
- ▶ 팔로델 조기병용투여는 Levodopa 장기투여로 인한 운동기능장애 (dyskinesia, fluctuation)를 방지합니다.
- ▶ 팔로델 조기병용투여는 환자의 생활의 질 (quality of life)을 개선시킵니다.

Olsson et al., 1989(7)
Nakanishi et al., 1989(8)
Grimes et al., 1984(2)

Levodopa

PLUS PARLODEL®

In early combination therapy



An effective treatment strategy for Parkinson's Disease

DRUG INFORMATION

- ▶ 조성·성상: 1. 조성: 1정중 메실산 브로모크립틴(U.S.P.)...2.87mg (브로모크립틴으로서 2.5mg) 2. 성상: 본제는 백색의 원형정제입니다.
- ▶ 효능·효과: 파킨슨씨병
- ▶ 용법·용량: 팔로델은 항상 식사직후에 투여해야 합니다. 투여방법은 질환에 따라 다양하나 대부분 적응중에는 부작용을 극소화시키고 최대효과를 얻기위하여 점증요법을 시행함이 좋습니다. 1일 1.25mg~40mg을 증상에 따라 투여하십시오.
- ▶ 사용상의 주의사항
 1.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마십시오. 맥각알칼로이드에 민감한 환자.
 2. 다음의 경우에는 신중히 투여하십시오.
 -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부인
 - 심근경색증등 심한 혈관 장애 혹은 그 기왕력 환자
 - 정신병 혹은 그 기왕력자
 - 소화성 궤양 혹은 그 기왕력자 (위장출혈을 일으킬수 있습니다.)
 - 신장 및 간장질환환자
 3. 부작용: 메스꺼움, 구토, 피로, 졸음, 현기증, 두통, 기립성저혈압, 혼란, 환각, 변비, 구갈, 운동장애, 동통성 각경련등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 ▶ 포장단위: 30T, 100T
- ▶ 보철약가: 373.88원/Tab.

Full Product information is available on request.

한국산도스주식회사
본사: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Tel.784-2882